잠재성과 비-잠재성을 함께 사고하기

양 운 덕

아감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잠재성 개념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 않을 잠재성'을 부각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성potenza을 부정하는 메가라학파, 곧 잠재성이 오로지 실현됨으로써만 존재한다고 보는 태도를 비판한다. 악기 연주자는 연주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연주할 수 있는 능력potenza을 지니고 있다. 그는 잠재성이 자율성을 지닌다고 보는데, 이는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이행하면서 잠재성이 소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감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현실성과 잠재성의 관계가 논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 존재론적인 것이라고 본다--잠재성은 '현존하는 실제적인 양식modi effettivi della sua esistenza'이다. (Agamben, 1995, 52; Geulen, 2005, 45)

(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 능력이 특정한 행위로 이행할 수 있으려면 행위 할 때, 능력/할 수 있음이 무능력/할 수 없음Impotenz과 분리되어야 한다. 행위 할 때, 잠재성에서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불가분적인 통일이 나뉘는 것은 이러한 '무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것을 충족시킨다. 이런 사고는 가능성과 실현을 의도, 의지로부터 사고하는 습관을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Geulen, 2005, 45-6) 이처럼 아감벤이 현실성-가능성이란 논리적 범주를 존재론화하는 까닭은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음의 반대항이 아니며, 할 수 없음이 고유한 힘을 지니며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같은 책, 46))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성dynamia이 무엇을 하지 않음adynamia을 포함한다고 본다. 음악을 연주하고 있지 않는 '잠재적인' 음악가의 예에서 보듯이, 잠재성은 능력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무엇을 하지 않음, 또는 존재하지 않음이다. (Geulen, 같은 곳) 따라서 잠재성이 실현됨으로써 사라지지 않고 고유하게 지속되려면 실현되지 않을non passare all'atto 수 있어야 한다. 잠재성은 구성적으로 (행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potenza di non (fare o essere), 곧 비 잠재성(impotenza; adynamía)이어야 한다. (Agamben, 1995, 52)[1]

그런데 이처럼 모든 잠재성이 ' ~ 않을 잠재성'이라면 현실성의 실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잠재적인 것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비 잠재성 adynamía)을 유보하는 순간에 현실성으로 옮아갈 수 있다. 비 잠재성의 유보란 (잠재성의 질적인 변화alloiosis나 파괴가 아니라) 잠재성의 실현, 곧 잠재성이 자신이 비 잠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되돌아가는 방식이다. (같은 책, 53)

이처럼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이행함은 잠재성의 보존conservarsi della potenza이자 잠재성을 자기에게 부여함"donarsi a se stessa" della potenza이다. (Aristoteles, De Anima, 417 b 1-16; Agamben, 1995, 53; 1999, 184)[2]

---

1) 잠재성potenza이 있다는 의미는 현실성으로 옮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잠재성을 말한다. Avicenna는 이것을 완전한 잠재성potenza perfetta이라고 하면서 글을 쓰고 있지 않은 필경사의 예를 들었다. (Agamben, 1999, 52)

2) 아감벤은 이것을 주권의 패러다임과 연결시킨다.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통해서 현실성과 관계 맺는 잠재성의 이런 구조는 자신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예외에 적용하는 주권적 추방령의 구조에 상응한다. (Agamben, 1995, 53)

인간은 그가 보거나 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 잠재성의 영역에 있다. 아감벤은 잠재성이 '능력', '힘'으로서, 단순히 비-존재, 결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존재의 현존existence of non-Being, 부재의 현전이라고 본다. 곧 '능력을 지님'은 '결핍을 소유함'을 의미한다. 잠재성은 (논리적 실체hypostasis가 아니라) 결핍이 현존하는 양상이다. (같은 책, 179)

아감벤은 건축가가 자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지식을 현실로 옮겨 놓지 '않을' 수mē energein 있기 때문에 잠재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곧 건축가는 건축하지 않는 잠재력을 지니는 한에서 잠재적인 건축가이다. (같은 책, 179) 이처럼 잠재성은 (단순히 특정한 것을 하는 잠재력이 아니라) '하지 않는' 잠재력potenza 'di non', '현실화하지 않는' 능력임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두움을 위한' 잠재성을 지적한 점에 주목한다. 흔히 생각하듯이 잠재성이 단지 보기 위한 능력일 뿐이고 빛이 현존할 때 보는 것 자체로만 존재한다면, 결코 어두움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림자to skotos를 볼 수 있고, 어두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보지 않을' 잠재력, 결핍의 가능성possibilty of privation을 지닌다. (Agamben, 1999, 181)[3]

아감벤은 인간 잠재성의 특성이 이처럼 '~하지 않을' 잠재력, 어두움을 위한 잠재력potentiality for darkness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지루함은 행위 하지 않는 잠재성의 경험이다. 따라서 지루함은 선과 악 모두의 가장자리에 있는 경험이다. (선하거나 악할 수 있음은 특정한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음이 아니다. 그리고 근본악은 특정한 악한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위한 잠재성'이다. 이런 잠재성은 또한 빛을 위한 잠재성이기도 하다. (같은 곳)

이런 점에서 모든 잠재성은 비잠재성impotentiality이기도 하다. "비잠재성adynamia은 잠재성에 맞서는 결핍이다. 모든 잠재성은 잠재성 자체, 혹은 잠재성 자체에 대한 비 잠재성이다 tou autoú kai katá to autò pása dýnamis adynamía (Aristoteles, Metaphysica, 1046 a 30-2; Agamben, 1975, 52; 1999, 181-2)

아감벤의 해석에 따르면, 그 기원적 구조에서 잠재성dynamis은 그것에 고유한 결핍strēsis, 그것의 고유한 비-존재와 관련해서 자신을 유지한다. 잠재성의 본질을 이루는 '잠재적인 것to be potential'은 자신의 고유한 결핍인 것, 자신의 고유한 비-활동성incapacity과 관계 맺는 것이다. 잠재성의 양상으로 현존하는 존재는 그것의 고유한 비-잠재성일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만 잠재적이 된다. 곧 존재들은 그것들의 고유한 비-존재와 관련을 갖기 때문에 잠재적인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 (Agamben, 1999, 182)

이런 잠재성에서 감각과 마비, 지식과 무지, 봄과 어두움은 서로 관련을 맺는다. "잠재적인 것dynatos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endéketai이다. 잠재적인 것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것 자체가 잠재적일 수도, 잠재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to autò ara dýnaton eînai endéketai kaì eînai kaì mē eînai." (Aristoteles, Metaphysica, 1050 b 12-13)

아감벤은 잠재적인 것이 비-존재를 수용하는dekhomai 점에서 잠재성이 근본적으로

3) Themistius는『영혼론』에 대한 주석에서, 감각이 현실성과 현실적이지 않음not-Being-actual 모두에 대해서 잠재성을 갖지 않는다면, 어두움을 지각하고 침묵을 들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사고가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의 부재anonia 모두에 대한 잠재성을 갖지 않고서는 형태 없는 것amorphon, 악, 무형적인 것aneidon을 알 수 없다. (같은 곳)

수동성이라는 (또는 근본적인 수동성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수동적 잠재성은 그것 자체의 비-존재를 견디고 겪는다. (Agamben, 1999, 182) 모든 인간적 능력은 그것의 고유한 결핍과 관련을 갖는다. 이것이 인간적 능력(또는 심연)의 기원이다.

"다른 생명체들은 그들이 특수한 잠재성만을 가질/잠재성일 수 있다. 그들은 오로지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의 고유한 비 잠재성일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적 잠재성의 위대함은 인간적 비-잠재성의 심연에 의해서 측정된다."(Agamben, 1999, 182)

아감벤은 이런 점에서 자유의 뿌리가 잠재성의 심연에서 발견된다고 본다. 자유로운 것은 단순히 특정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거나 특정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비-잠재성일 수 있음to be capable of one's own impotentiality이고 자신의 고유한 결핍과 관계맺음이다. 이렇게 볼 때 자유는 선과 악 모두를 위한 것이다. (같은 책, 182-3))

(아감벤은 양상범주들을 인식론적 범주가 아니라 존재론적 조작자/연산자 operatori ontologoci로 재규정한다. 여기에서 가능성possibilità(존재할 수 있음 poter essere)과 우연(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poter non essere)은 주체화하는 조작자들operatori이고 가능한 것들이 현존으로 이행하는 지점이고, 불가능성, 가능성에 대한 부정--non poter essere--과 필연(우연의 부정non poter non essere은 탈주체화, 주체 파괴의 조작자이다.

우연과 가능성은 존재를 그 주체성, 곧 항상 '나'의 세계로 구성한다. 이는 나의 세계 안에 불가능성이 존재하고 현실적인 것과 접촉하기contingit 때문이다. 불가능성과 필연은 존재를 그 전체이자 꽉 들어참compatezza으로, 주체라고는 없는 순수한 실체성으로 규정한다. 여기에서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의 세계는 없다.) [4]

4) 이런 가능성-불가능성의 관계는 아우슈비츠와 연결된다. 아우슈비츠에서 경험은 불가능한 것이 현존하고, 불가능한 것이 강제로 현실이 되는 황폐화를 겪는다. 그곳에서는 불가능성이 현존l'esistenza dell'impossibile하고, 우연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절대적인 필연의 장소이다. 괴벨스가 정치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듯이, 죽음의 정치가 실행된 아우슈비츠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주체를 주체화와 탈주체화 사이의 연결이 무너지는 극한지점까지 내몰고 변형시켜서 탈구시키는disarticolare 실험이다. (QA, 137-8)